

디지털 시대의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성 개념의 상징성

Symbolism of Sexuality Concept Expressed in Fashion Design of Digital Era

김 지 희

대구한의대학교 웰빙복지대학 패션·시각디자인학부 부교수

Kim jee-hee

Daegu Haany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방법

2. 디지털 문화와 성 개념

- 2.1. 유목적 성
- 2.2. 수평적 성
- 2.3. 무경계성

3. 패션디자인에서 성 개념의 상징성

- 3.1. 가장성
- 3.2. 인공성
- 3.3. 통합성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성 개념의 변화가 패션디자인을 통해 표현된 상징적 의미를 확인하여 미래 패션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로, 하나의 성에 안주하지 않는 유목적 성,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성, 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무경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에서 성 개념은 의복이나 외모에 성적인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정체성을 숨기는 가장성, 화장이나 성형, 의복의 착용방법에 따라 다른 성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인공성,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의 의복에 공존하는 통합성으로 상징되고 있다. 성 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패션디자인에서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거나 어떠한 성으로도 전환될 수 있으며, 착용자의 의도나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른 성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디자인을 추구한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도 성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일 것이며 성을 구분하는 모호함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패션디자인 역시 모든 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열린 성 개념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주제어

성, 패션디자인, 상징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foundation that will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 of future fashion design, by confirming symbolic significance, in which a change in the sexuality concept of digital era was expressed through fashion design.

The concept of sexuality in digital era can be divided into the nomadic sex of not being satisfied with one sex, the horizontal sex of recognizing diversity of sex, and the borderlessness of being disappeared division in sex, due to collapse of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The concept of sexuality in fashion design is being symbolically expressed as the masquerade of hiding identity without being indicated sexual characteristic in clothing or appearance, as the artificial characteristic of being able to be changed into other sex depending on make-up, plastic surgery, or wearing method of clothes, and as the integration of being coexisted femininity and masculinity in one clothing.

The concept of sexuality in digital era of taking flexible position in expressing sexual identity pursues open design that doesn't express sexual identity in fashion design or can be changed into any sex, and that can express other sexual identity according to wearer's intention or viewer's sight.

Even in the post digital era, the attitude toward sex will be open. Ambiguity of dividing sex will be more deepened. Even fashion design will come to proceed with advancing to the direction of expressing the open sexuality concept of recognizing every sex and of being coexisted.

Key Word

gender, Fashion Design, Symbolis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패션행동은 의복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통한 개인적 차원에서 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고 가치관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의복이 가진 역할 중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의복이 가진 어떠한 역할보다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역할로써 특히 의복착용의 행동은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져 왔다.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각 시대나 문화마다 개인의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특성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도록 규정지어진 관념인 성은 의복을 통해 터득되어졌고 의복은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송명진, 채금석, 2001).

특정시대와 문화에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성 관념은 의복에 의한 표현에 의해 확연히 드러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의복은 개인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성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시각적, 문화적 도구임에 틀림없다.

성은 인간 개인의 신체구조와 심리구조 나아가 사회문화적 규범 및 사회조직들과 관련된 복합적 개념으로(송명희, 2000) 남녀의 성 역할 변화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게 논의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표출되어져 왔으며, 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중 의복행동은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성 개념에 반하는 의복행동은 사회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하나의 하위문화로 취급받아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가치관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은 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혼란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관념들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시대의 유연한 사고와 수평적 가치관을 갖는 패러다임은 의복을 통한 성 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의 성 관념에 반하는 의복행동은 오히려 대중적으로 수용되고 매스 패션화해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개념과 관련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 성 개념의 양성적 특성과 그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경옥, 2004; 권기영, 2004; 권지은, 2003; 양

은진, 2008)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유연한 사고와 함께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이를 패션디자인을 통해 표현하고자하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과 연관하여 의복을 매개로 하여 표출되는 성 개념의 표현과 그에 따른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패션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성 개념의 변화를 파악하고, 패션디자인을 통해 표현된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패러다임 변화의 상징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디자인이 시대정신 및 문화를 반영하여 발전함을 인지하고 다가올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담론과 이를 표현 할 패션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현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패션을 통해 표현된 형식에 근거하여 그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에서 형식을 차용하여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현대의 성 개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대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면서 겪게 되는 성 개념의 관념적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대 디지털 사회의 성 개념의 변화와 그 의미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패션을 통해 나타나는 성 개념의 가시적 표현 형태와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다.

둘째, 이와 같은 이론적 기초를 근거로 성 개념의 변화의식이 현대 패션에서 반영되어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패션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제시되었던 패션작품의 사진 분석에 의한 실증적 자료의 제시를 통하여 파악, 분류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을 통해 나타나는 디지털 시대 성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철학, 사회문화와 예술, 그리고 복식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였으며, 국내외 패션 및 예술관련 서적, 인터넷 사이트의 관련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이 빠른 속도인 만큼 디지털 시대의 패션도 외형적 형태 뿐 아니라 이에

다른 내면적 의미 역시 빠르게 변화하므로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10 S/S, 10 F/W, 11 S/S의 최근의 패션 컬렉션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디지털 문화와 성 개념

인간의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예술과 철학, 대중문화 등 사회 전 방위의 분야에서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성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신체물리학적 조건에 의한 기준으로 생물학적 본능이나 생물학적 차이에 기준을 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구분되어지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있다(권기영, 2004).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한 관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과 사회와의 연관성에 의미를 두고 성은 인간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은 문화 의존적이며 관계적이며 비객관적인 자질로 인식된다. 인간의 성적 정체성은 고정된 본질이나 본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망 속에 어떻게 놓여 지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그 역할이 규정된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송명희, 2000).

현대 사회에서의 성 개념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을 언급하는 문화의 문제로(박미령, 2003) 이해될 수 있다. 즉 현대의 성에 대한 개념은 생물학적 성보다는 사회문화적 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Lacan은 성적 위치를 성차화 된 주체로써 사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박미령, 2003, 재인용).

Judith Butler와 같은 이론가는 성역할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심사들과의 경쟁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지고, 최후로는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물로 파악하였다(심정순, 1999).

젠더에 대한 정체성은 페미니즘 초기부터 현대까지 주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19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서구문화를 주도해 온

남성중심의 이성주의적 담론을 해체하며 자연적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시선을 돌려 성의 단일한 대립구도 속에 집어넣는 태도를 거부하는 양성성을 통해 성차별주의의 극복을 시도한 것(박미령, 2003, 재인용)을 의미한다.

페미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성과 관련된 사상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양성성을 지향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념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양성성이 동일선상에 있다가 보다는 남성을 목표로 하는 성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사회문화적 변화와 유기적 관계를 갖는 성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관념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2.1 유목적 성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야기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의 시대인 디지털 사회는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던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절대적 가치라고 인정하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해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탈중심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부유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을 부유하는 신인류를 Jacques Attali는 '디지털 유목민'¹⁾이라는 21세기 신인류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삶의 형태와 문화로 제시하였다(Attali, J., 1999).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사회에서 딱딱한 고정형의 인식구조는 유연한 액체형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는 어느 한곳에 정착되어져 있는 고정적인 것이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를 수용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특정 성과 관련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모호한 성 개념의 당위성을 생성해 내고 있다(안소현, 이경희, 2000).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개념은 특정성에 대한 고정적 정체성이 아니라 어떠한 성에도 정착하지 않고 자유로이 부유하는 유목적 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유목적 성의 표현양상은

1) 디지털 유목민은 자크 아탈리가 명명한 신조어로서 과거의 유목민처럼 주거나 직장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변화하는 새로운 인류관으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낸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면 생활하는 신인류를 의미한다.

특정 성에 대한 절대적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고 탈권위적, 비형식적 표현을 추구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목적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고정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어떠한 성으로라도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유동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시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디지털 유목민에게 자유의 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써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변화된 의식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자신의 외모 역시 원하는 성에 따라 바꾸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떠도는 디지털 유목민에게 고체형의 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정착하는 곳의 문화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갖는 유연한 사고와 서로의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인 특성은 성 정체성에 대하여서도 다른 성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함께 배타시되던 제 3의 성까지도 인정하는 유연한 성 정체성으로 표출된다.

디지털 문화는 성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으며 디지털 유목민 문화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함께 인간에게 내재된 성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성차의 간극을 느끼지 못한 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목적 개념의 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2.2 수평적 성

디지털의 특성인 쌍방향성 즉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개성화에 기인한 탈대중성을 표방하는 디지털 사회의 도래는 더 이상 권위적 관계나 수직적 사고의 입지가 없어지면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구조 역시 수평적, 개방적 체제로 변화되면서 권위적 관계는 붕괴되고 수직적 계층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이 제공하는 가상공간과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인간화된 기능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동시성을 갖는 관계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 사회로 인식되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어지고 있다.

성에 대한 기존의 성 개념에서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대립구조 속에 놓여 있었지만 오늘

날은 남녀 간의 힘과 속도의 차이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시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안소현, 이경희, 2000). 유연한 사고와 여성성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남성의 하는 일과 여성의 하는 일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과거 농경사회에서 요구되어지던 힘으로 상징되는 남성의 특성에 대한 요구가 감소함에 따라 남녀의 실제적 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자연적인 성차인 섹스보다는 성 역할의 사회화 과정에 의한 성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안소현, 이경희, 2000), 미래의 여성들은 남성 없이도 아기를 갖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남성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져 결국 남성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래에 더 강력한 파워를 행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과 협력해야만 할 것이다(Crystal, L., 1998).

특히 미국의 미래학자 John Naisbitt(2000)는 남성이 원초적인 산업노동자였는데 반해 여성은 정보노동자이며 정보사회로 인식되어지는 디지털 시대에 대하여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Naisbitt, J., Aburden, P., 2000).

20세기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인물인 Simone de Beauvoir가 제 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언명한 것은 생물학적 성(sex)보다도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중요성을 밝히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열등하거나 부족한 인간으로 평가되던 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은 모두 하나의 보편범주로 집단화되고 남성은 여성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는데 있다. 페미니즘의 기원 역시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이를 추종하는 개체로서 여성을 평가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조현준, 2007).

그러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성 개념은 주종의 개념으로 두 성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성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에 대하여 가치를 두는 수평적인 성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탈중심화 문화에 의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 동시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에 속한 남성과 종속적이며 보여지는 존재로써 의존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속한 여성으로 구분되어지던 성의 구분은 두

가지의 성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면서 성의 동시성과 수평적 성의 개념을 인정한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닌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성 개념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한 한 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기보다 두 개의 성을 수평적인 위치에 놓고 바라보고 있으며 양성을 넘어서서 제3의 성이라 할 수 있는 동성애, 양성애도 하나의 또 다른 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사고를 통한 수평적인 성 개념을 지향한다.

2.3 무경계성

디지털 사회에서는 기존의 문화에서 관습처럼 굳어져 왔던 다양한 경계들 즉 성, 인종, 계급, 그리고 인간과 식물,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물, 인간과 기계, 인간과 신의 경계가 붕괴되어 가면서 융합과 공존의 미학이라는 혼성적 개념, 즉 퓨전 문화를 대두시켰다. 어느 쪽에도 우위를 부여하지 않는 동일선상의 공존을 의미하는 디지털 시대의 혼성은 성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인종의 혼성을 의미한다(김지희, 2006).

디지털 시대 문화담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혼성의 개념에 의해 성 개념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고정적 정체성에서 다중적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나의 인간에게 두 가지의 양성(양성)이 공존할 수도 있으며,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성 즉 제 3의 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들은 어떠한 확실한 경계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다면적인 성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성의 무경계성은 하나의 개체에 여러 개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혼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성에 대한 다중성을 인정하는 사고이다.

생활 전반에 걸쳐 기계화가 진행됨으로써 더 이상 남녀 간의 육체적인 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반대 성으로의 변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만큼 디지털 시대에서 성차란 결코 분명한 것이 아니다(안소현, 이경희, 2000, 재인용).

또한 디지털 세대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 신체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성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의 형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다른 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이성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는 성의 융합과 함께 성에 대한 무경계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양자의 어디에도 일치되

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성 정체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 개념의 퓨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현대의 발달된 과학기술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물리적, 생물학적 차이의 구분의 필요성을 감소시켰고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님으로써 넓은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양성성을 가진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의 인간상은 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며, 이를 통해 유연한 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녀 양성(양성)이 융합된 인간형으로써 기존의 성 개념을 초월하여 성의 동시성을 인정하는 한편 이는 제 3의 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에서 성에 대한 개념은 양성적 성이나 성에 대한 해체적 특성보다는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 성의 좋은 점을 선택적으로 융합시키는 융합의 개념과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열린 사고, 즉 한쪽 성에 바람직한 모든 특성이 다른 성에게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양성(양성)의 특성을 공유하거나(안소현, 이경희, 2000) 더 나아가 양성(양성)의 특성 이외의 장점을 지닌 새로운 인간상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성의 무경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세상의 도래는 여성스러운 남성 혹은 남성스러운 여성처럼 전통적인 성의 구분이 붕괴되고 양성(양성)의 이점을 공유한 새로운 유형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기존의 성적 정체성의 사회적 진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양성 평등시대를 맞아 성 역할의 이분법적 구도가 붕괴되면서 겪는 양성(양성)의 교차와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용섭, 2005).

디지털 시대는 성별의 구분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에서 상대적 기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미래 디지털 사회의 성 개념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고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모든 가치 기준에서 절대성이 해체되고 두 가지의 공존과 공생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린 사고는 두 가지의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컨버전스, 자용동체 혹은 퓨전 문화라는 문화 유형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가치관에 기초하여 디지털 사회에서는 성별의 이분법이 붕괴되고 양성 평등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궁극에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정체성은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무성에 가까워질 것이다(김용섭, 2005).

3. 패션디자인에서 성 개념의 상징성

패션은 한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표현문화로써 의복과 관련된 의복행동들은 시대상황과 문화적 맥락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소현, 이경희, 2000). 이러한 의미에서 의복을 통해 표현되는 성적 상징성은 그 시대의 성 개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적 정체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목적 성 개념과 함께 여성과 남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에 대한 수평적 사고는 서로의 성적 정체성을 넘나들며 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패션디자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을 표현 도구로 하여 나타나는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개념을 가장성, 인공성, 통합성의 상징적 의미로 구분하였다.

3.1 가장성

정보의 디지털화는 인간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사물, 사건 혹은 현상 등을 고성능의 컴퓨터와 광범위한 통신망에 의한 열려진 공간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치 현실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상공간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공간을 의미하며, 기술의 영역을 넘어 현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즉 가상공간은 기술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행동양식과 경험의 양식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상의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의 등장은 물질계에서만 이루어지던 사회적 관계가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상공간 안에서 새로운 인간상을 탄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는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빈부의 차이 등의 편견 뿐 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조차도 초월하여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상공간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된다.

가상공간에서 개인의 의미는 육체적, 심리적 특성을 지닌 자연인으로써가 아니라 정보화된 인간으로서 물리적 환경에서와는 다른 경험양식이나 행동을 야기시킨다. 특히 현실에서 제한받던 생각과 경험의 확장이 가능한 가상공간에서는 현실과는 다른 자신의 모

습을 표현하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자신을 만들며 즐기려는 욕구를 현실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많이 드러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공간은 다양한 정체성을 창조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가상공간에서는 정형화된 '나'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 다양한 성격, 다양한 내면을 가진 '나'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성 정체성의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성 정체성의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혹은 여러 개의 성적 정체성을 지닌 자아가 가장될 수도 있다. 가상공간에서 익명성의 보장은 성 역할의 변화를 자유로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반대 성으로의 변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세대들에게 있어서 성적 정체성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적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가상공간에서의 다중정체성 표현의 대표적인 예인 아바타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성 정체성의 측면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가상공간 안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한 복장의 도착, 성별의 무구분화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상공간이 가지는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심화 될 수도 있다. 이는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자신의 성을 타인에게 밝히지 않고 자신을 다른 성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 가장하여 생활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에 의한 성 정체성의 가장성은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디지털 시대에 가상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현실에서 구현하거나 실현해 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Hussein Chalayan의 마치 미이라 같이 얼굴 전체를 감싼 디자인의 원피스는 얼굴을 가림으로써 익명성을 통한 성 정체성의 혼동을 표현하고 있다. 성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인 얼굴을 가림으로써 실제의 디자인은 여성용의 원피스이지만 그 옷을 착용한 사람의 성별은 막연히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그림 1>.

또한 눈을 가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커다란 남성용 재킷을 걸치고 운동화를 착용한 모델을 등장시켜 마치 아빠의 옷을 입고 나온 성을 구분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녀 노소의 구분을 알 수 없게 하는 디자인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익명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Dries Van Noten은 메탈릭한 소재의 재킷과 커다란 추상적 무늬가 있는 소재의 슬랙스의 조합을 남성적 이미지가 강한 모델이 착용함으로써 여성적인 소재의 남성적 디자인의 의복을 착용한 여성인지, 남성인지의 구분이 모호하게 함으로써 성적 익명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3>.



<그림1> Hussein Chalayan ('10 F/W, Paris)



<그림2> Hussein Chalayan ('10 F/W, Paris)

출처: www.style.com



<그림3> Dries Van Noten('10 F/W, Paris)

출처: www.style.com

익명성을 전제로 한 패션디자인에서의 가장성은 자신의 실체를 가리고 성적 구분이 불가능한 외모와 의복을 통해 성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패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2 인공성

빠른 속도와 함께 일탈의 자유가 일상의 주제인 디지털 유목민에게 성에 대한 개방은 또 하나의 문화로 확대되고 있다. 섹슈얼리티 표현의 관대함, 저연령층에 일반화된 성에 대한 정보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오락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이혜진, 2002).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성에 대한 개방된 의식과 신체관의 변화는 가상공간 안에서 다양한 성적 변환의 시도에 머물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무너뜨린 다중적 성을 지닌 존재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기계와 인체의

경계를 넘어선 사이보그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성에 대한 관심은 곧 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행해진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한 편승으로 얼굴과 몸의 형태를 바꾸어 보는 성형수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이혜진, 2002).

정체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스타일, 의상, 피부관리, 이미지, 잘생긴 외모 등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단이다. 몸이란 단지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Bordo, S., 2003).

디지털 시대의 문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몸이란 가상의 공간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형태, 피부색 등을 바꾸어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상공간 안에서의 시도는 현실에서 얼굴과 몸의 형태를 수시로 바꾸어보는 성형수술이 일반화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성형의 유행이나 다이어트의 열풍은 신체와 관련된 현상이 사회현상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대의 사회 환경 속에서 신체나 신체관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에 대한 일탈이 가능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나르시시즘적 도취나 상상적 세계의 구현, 가시적 현상물을 창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탈주에 대한 환상을 실현(김현수, 2002)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들어오면서 등장한 메트로섹슈얼²⁾은 디지털 사회에서 성과 신체관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메트로섹슈얼은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시대적인 사회상의 한 조류라고 할 수 있다(권지은, 2003).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혼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특성인 여성적이고 섬세한 문화기저에 대한 표출이다. 이러한 여성적 정체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2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남성의 화장이 일반화되고 피부를 관리하거나 성형을 시도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것은 내면적인 여성스러움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변형, 왜곡하는 인공성을 가하여 적극적으로 성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2) 메트로 섹슈얼이란 1994년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크 심프슨이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적 취향의 남성들을 메트로 섹슈얼로 표현한 것이 시초로, 여성스러운 미소년의 얼굴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남성성을 유지하면서도 패션, 헤어스타일 등 외모 가꾸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즐기는 현대 남성을 뜻한다.

남성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오히려 여성화되고자 하는 성향은 일반적인 성 개념에 대한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성 개념에 대한 전통적 사고와 문화에 대한 재고를 유도(김현수, 2002)하는 것으로써 권력이 탈중심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보는 주체가 되지 못했던 여성이나 동성연애자들이 남성을 에로틱한 대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음(박미령, 2003, 재인용)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Vivienne Westwood는 추상적 무늬의 부드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착용한 여자 모델에게 수염을 그려넣고 의식적으로 남성화된 화장을 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공존을 보여주는 한편, 종이로 만든 커다란 왕관을 쓴 남자의 모습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남성을 표현함으로써 은연 중에 여성의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화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성으로의 변환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



<그림4> Vivienne Westwood('10 F/W, Paris)

출처: www.style.com

Viktor & Rolf는 러플이 달린 여성스러운 스커트가 코트로 변신하는 디자인을 통해 하나의 의복으로 필요에 따라 여성적 디자인과 남성적 디자인으로 변형하여 착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의복을 착용한 사람이 외모의 변형이나 왜곡 없이 의복의 착용방법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필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림 5>.



<그림 5> Viktor & Rolf('10 F/W, Paris)

출처: www.style.com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신체의 왜곡이나 변형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른 성을 경험해 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에 외부적인 힘을 작용시켜 다른 성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패션에서는 화장이라는 문화적 행위를 통하여 성의 변환을 경험해 보거나, 기존의 의복 착용법의 해체를 통하여 남성복 혹은 여성복이라는 고정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손쉽게 다른 성적 존재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인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3.3 통합성

이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은 전통적으로 표현적이며 사적 영역으로, 남성은 도구적이며 공적 영역으로 동일시 되어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점차 공적 영역으로까지 넓혀짐에 따라(손미희, 임영자, 1997) 여성들이 표현적 유산을 통해 얻은 직관, 부드러움, 인내 등은 유연한 사고를 추구하는 21세기 디지털 마인드에 적합하게 활용되면서, 여성의 표현적 자질은 중요한 역할 또는 능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원론에 접근한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남성적 특질인 도구성과 여성적 특질인 표현성이 융합한 이념인 통합성을 주장하였다. 이 통합성은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양성구유, 자웅동체를 뜻하며, 성 개념에서 볼 때에는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상태를 의미하였다(손미희, 임영자, 1997).

여러 방면의 지식을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고 남성에 비해 비교적 섬세함, 상상력, 감수성을 고루 갖춘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강제되었던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코드로는 디지털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디지털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지니며 양성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기존의 성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며 필요에 따라 양성의 특성 중 필요한 특성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의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다.

성에 대한 동시성의 인정은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고립이나 권위의 해체, 또는 붕괴와 위기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써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서일윤, 2009).

90년대는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아닌 인간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는데 이는 유니섹스나 앤드로지너스와는 미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안소현, 이경희, 2000, 재인용).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기존의 고정적인 성 관념이 깨어지고 강한 여성, 부드러운 남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의 고유영역, 여성의 고유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미 무너지고 남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섬세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인간상(양은진, 2008)을 표현하는 패션이 등장하고 있다.

Martin Margiela는 남성의 의복을 대표하는 경직된 디자인의 재킷과 함께 부드러운 시스루의 여성적 디자인의 스커트를 함께 매치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디자인으로 패션에서의 성의 동시성을 표현하였다<그림 6>. 과거의 혼성의 디자인이 남성복과 여성복의 경계가 없는 유니섹스 모드의 패션디자인을 추구하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을 표현하는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남성적인 아이템과 여성적인 아이템의 공존을 통한 성의 혼돈을 표현하고 있다.

Givenchy는 남성용 재킷에 스커트를 입은 건장한 남성모델을 등장시켰다. 이 모델은 남성용 드레스 셔츠와 재킷에 스커트를 착용하고 발등에 밴드가 달린 펌프스를 착용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혼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성의 여성복 수용의 모습이 스트리트 패션이나 유니섹스 등의 하위문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성용 수트의 패션디자인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7>.



<그림 6> Martin Margiela('10 F/W, Paris)



<그림 7> Givenchy('10 F/W, Paris)

출처: www.style.com

Comme des Garçons은 티어드 스커트 위에 남성용의 재킷을 입은 모델을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의 공존을 통해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그림 8>, Viktor & Rolf는 남성복 디자인에서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쇼츠의 수트를 통해 기존의 무겁고 권위적인 남성상에서 벗어난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

다<그림 9>.

Jil Sander는 하나의 의복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을 함께 디자인해 놓음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혼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성적 이미지의 테일러드 칼라의 재킷과 어깨를 드러낸 형태의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원피스는 하나의 의복으로 디자인 되어 하나의 개체 속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그림 8> Comme des Garçons('11 S/S, Paris)



<그림 9> Viktor & Rolf('11 S/S, Paris)

출처: www.style.com



<그림 10> Jil Sander('10 F/W, Milan)

출처: www.style.com

디지털 시대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관념 자체나 생물학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성의 범위를 넘어 성의 무경계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패션디자인에서 남자가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거나 여성의 복식요소를 공유, 융합시키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형적인 성을 표현하는 형태 뿐 아니라 기존의 남성복과 여성복이라는 고정된 의복관념을 완전히 파괴한 형태를 패션에 도입하여 여성적인 아이템과 남성적인 아이템이 함께 믹스매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성의 특성이나 정체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디지털 시대는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과거의 성차가 줄어든 비슷한 형태의 옷을 착용하거나 이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나 이미지를 차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여성이 남성의 아이템을, 남성이 여성의 아이템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면서 하나의 패션디자인 안에 확실한 두 성의 요소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4. 결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문화의 유연한 사고와 수평적 가치관을 갖는 패러다임은 성 개념에 있어서도 열린 사고를 지향하며 과거와는 다른 성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성 개념의 변화를 파악하고 패션디자인을 통해 표현된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패러다임 변화의 상징적 의미를 확인하여 다가올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담론과 이를 표현할 패션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특정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어느 성에도 안주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체성을 갖는 유목적 성 개념, 성에 대하여 우열을 가리려는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와 함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수용하고 각 성의 장점에 대하여 가치를 두며 수평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성 개념, 성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다양화, 세분화됨으로써 성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무경계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의 성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형태의 성이라도 인정하고 환경이나 필요에 따라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에 대한 열린 사고'로 정의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떠한 성도 존재하지 않는 무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에 기반한 패션디자인은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여 의복이나 외모에 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실체를 구분할 수 없는 외모로 정체성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장성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개방된 의식과 신체관의 변화는 화장이나 의복 착용방법의 변화 등으로 성 정체성의 변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은 인공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는 남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섬세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인간상을 패션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이성의 패션디자인 요소나 이미지의 차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 디자인과 남성적 디자인이 하나의 의복 안에 함께 공존하는 통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성 개념은 패션디자인에서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거나, 어떠한 성으로도 쉽게 전환될 수도 있으며, 착용자의 의도나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른 성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디자인을 추구한다.

미래의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도 성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개방적일 것이며 성을 구분하는 모호함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패션디자인 역시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류와 함께 성을 구분하는 도구로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디자인, 더 나아가 제 3의 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개념과 이를 표현하는 패션디자인의 발전 방향의 심도 있는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기영.(2004). 패션 잡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100-111.
- 권기영, 조필교.(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681-706.
- 권지은.(2003).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경옥.(2004). 현대 패션에 표현된 성 정체성 연구. '배화논총', 23, 129-153.
- 김병옥, 이상례.(2003).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470-480.
- 김용섭.(2005). 디지털 신인류. 서울 : 영림카디널.
- 김지희.(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수.(2002). 디지털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길순, 김서연.(2005). 남성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현상.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8(1), 30-40.
- 박미령.(200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4), 324-330.
- 서일윤.(2009). 대한민국 마이크로 트렌드. 서울 : 토네이도미디어그룹.
- 손미희, 임영자.(1997).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32, 261-282.
- 송명진, 채금석.(200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25(2), 327-338.
- 송명희.(2000). 섹슈얼리티, 젠더, 페미니즘. 서울 : 푸른사상.
- 심정순.(1999). 여성의 눈으로 본 섹슈얼리티와 대중문화. 서울 : 동인
- 안소현, 이경희.(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 변화의 추이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5), 702-713.
- 양은진.(2008). 현대 여성의 콘트라섹슈얼 성향에 따른 패션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민선, 김민자.(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1). '한국의류학회지', 51(1), 163-174.
- 이혜진.(2002). 유목문화와 디자인. 디자인네트, 55, 82-85.
- 조현준.(2007).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서울 : 한국학술정보.
- Attali, J., 편혜원, 정혜원 역.(1999). 21세기 사전. 서울 : 중앙M&B.
- Bordo, S., 박오복 역.(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게. 서울 : 또하나의 문화
- Butler, J.,조현준 역.(2008).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서울 : 문학동네
- Crystal, L.(1998). Genderless Wave in Menswear. Bazzar, (February).
- Naisbitt, J., Aburden, P., 김홍기 역.(1998). 메가트랜드 2000.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 田崎英明, 이은미, 이주희, 김필식 역.(2006). 젠더/섹슈얼리티 : 사고의 프론티어. 서울 : 한국문화사
- www.style.com